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제1376호 2003년 (불기 2547년) 11월 3일 월요일

금주일언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이 세상의 행복도 작은 선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구경

'실현가능' 한 공약으로

공약이행 중간평가 · 공약검증단 구성 필요

-학생회, 이제는 변화해야-

학생회 선거가 다가왔다. 그러나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는 투표율 저조와 학생회 구성 무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학생회 소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생회 운영구조 등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① 선거공약 이행
② 의견수렴절차
③ 예산의 투명성
④ 간담회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 ○○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언제부턴가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공약을 믿고 지지했으나 결국 공(空)약으로 끝나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학생회가 내세운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을까.

35대 총학생회(회장=유영빈 · 경영4)는 지난 3월 보궐선거 당시 △등록금 재책정과 등책협 구성 △동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좋은 수업 만들기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총학생회는 등록금과 관련해 △8%로 하향 조정 △인상분 중 1%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학교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쟁점이 됐던 등책협 구성은 학교측이 등록금 관련 공식기구 구성을 반대하고 학생회도 서명운동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않아 아직까지 논의중이다.

또한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동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총학생회장과 매주 수요일에 만나기 △메신저 토크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9월 동국사랑홈페이지(www.dglove.net)를 개설함으로써 학내이슈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강의평가, 디카사진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과 만나기, 메신저 토크는 흐지부지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좋은 수업 만들기' 활동을 펼친 결과,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다음 학기부터 학생회요구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학생의 견이 교육과정개편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총학생회는 학내 문화행사를 확충하기 위해 야외카페와 과학생회실 꾸미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지만 축제의 경우 지난해와 차별화 되지 않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은 참여인원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빈 총학생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등책협 구성과 동국사랑홈페이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학생회 평가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과대 학생회 역시 남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과대의 취업설명회 개최와 사과대의 전체학생총회 성사 등 각 단과대학생회장이 제시한 공약 일부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면(보도)으로 이어짐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중 · 장기 계획안 준비

대종평 대비 현황 분석 · 부서별 선도과제 공모 등

본교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교육 · 연구 등 각 부분에 대한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중앙일보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이에 대한 분석 결과와 앞으로 계획 수립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본교는 오는 2005년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이하 대종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종평은 타 평가와 달리 대교협이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자체평가함으로써 평가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기획인사처(처장=이영환 · 경제학)는 지난 6월 실무팀을 구성해 현황조사를 마친 상태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협동 △학생 · 교수 · 직원 등 11항목 중 7항목에서 C등급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중 △시간강사 의존률 △교수 당 학생 수가 높고 △교내 연구비 수혜율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이번 평가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0월 기획연구위원을 위촉했으며 앞으로 평가 영역별 팀을 구성해 열악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그레이드 동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부서별로 교육 · 행정 등에 대한 선도과제를 공모하고 심사 후 포상할 예정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자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 평가 및 계획 수립은 궁극적으로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학교측은 현실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동국 청소년연극제 시상
세원고 대상 수상

'2003 동국청소년연극제 시상식'이 지난 1일 2시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극제는 전국 27개 고등학교가 참가해 11일 동안 진행됐으며 대상은 세원고의 '첫사랑', 최우수연기상은 '파수꾼'의 최지원(광주동신여고)양과 '첫사랑'의 유정훈(세원고)군이 수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최우수작품상=광주동신여고, 선린인터넷고 △우수작품상=광주세종고, 대진여고, 목포정명고, 송곡여고 △장려상=건대사대부고, 경화여고, 사우고, 충주예성여고 △우수연기상=유병조(선린인터넷고), 이제용(세원고), 최재영(송곡여고), 박종미(충주예성여고) △장려상=양정은(건대사대부고) 외 7명 △지도교사상=최현정(건대사대부고), 김철옥(광주세종고)이다.

열사 뜻 이어받아 … '노동탄압 분쇄 · 이라크파병 저지 · 노무현 규탄 범국민대회'가 지난 1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학생 · 시민단체의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 · 노동탄압 분쇄' 등을 소리 높여 외쳤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구자룡 · 이승효 조 단독출마

총학, 18일부터 3일간 투표
총대 · 졸준위 17일 선거

제36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결과 구자룡(야간경영4) · 이승효(국교4) 조가 단독 출마했다.

'자주의 새날 일만이천의 어깨동무'를 구호로 내건 구자룡 · 이승효 조는 선거 공약으로 △재단개혁 통한 학교 재정구조 정상화 △제3캠퍼스 이전 계획에 대한 구성원 의견 반영 △공간소위원회 구성 통한 공간문제 해결 △과학생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 단과대 후보자 등록은 마감됐으나 후보자 등록율 저조로 오는 5일로 등록을 연장했다.

▶관련기사 2면(보도)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3일)부터 오는 15일까지며 투표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욱 · 화공4, 이하 중선위)는 지난 31일 후보자 룰미팅을 진행하고 △중앙도서관 앞 투표소 추가 설치 △선거유세를 언론사와의 공개토론회로 대체 △선거 유인물 4천부 배포 등을 결정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의장과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오는 17일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된다.

입후보자는 6학기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총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30인 이상,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6일부터이며 출마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서 △회칙 준수서약서 △소견서 △추천서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총 170여개 접수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본부장=선상규)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슬로건공모 결과 총 170여개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해 모든 구성원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오는 17일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 책자 발간
학생회관 등에서 배부

여학생실(실장=손재현 · 체육교육)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등을 소개하는 '밝고 당당한 동악 만들기'라는 소책자를 제작했다.

이는 △성희롱의 유형과 예방법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부터 각 학과실과 학생회관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마련

재활용품 바자회 · 헌혈캠페인 등

이번 달부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2003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7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팀에게는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와 물품 구입비 지원 △학점부여 및 인증서 발급 △우수봉사자에게는 장학금 지원 등의 연계지원이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전공연계성과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계획서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참사람봉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재활용품 바자회=오는 12일 중도 앞에서 열리며 5일부터 11일까지 생활잡화, 소형가전제품 등의 헌 물건을 기증 받는다.

기증품은 참사람봉사단에서 접수하며 규모가 큰 물건은 전화할 경우 방문 수거한다.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헌혈캠페인=건학 1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헌혈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중앙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10시간 인정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밖에 연중행사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모금 △매달 셋째주 토요일 동국인 자원봉사의 날 제정 △시설 청소년과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발전방향 제시 ④ 교수임용(해설보도)

보리수

도세의 개념

"인(印) 총리와 회담-다자외교 첫발" 지난 10월 7일자 어느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인도 총리와 나란히 앉은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실려있다. 그런데 정작 기사는 우리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국내 사정과 관련하여 동포 20여명에게 토로한 대통령의 심정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는 다자(多者)들의 세계인데, 말로는 "다자외교"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 의식 안의 세계는 그렇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느낌은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도 찾아왔다.

"정말 우리에게 세계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슬람 세계 역시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말이다.

그런데 파병론자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는 여전히 미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라크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정립에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본다.

불교에서는 "세계가 한 떨기의 꽃이라(世界一花)"고 말한다.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익(國益)만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국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우리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외교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자외교(多者外交)말이다.

이렇게 국익만을 추구하는 좁은 세계관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로운 우정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 동국대의 교훈(校訓), "도세(度世, lokasamgraha)"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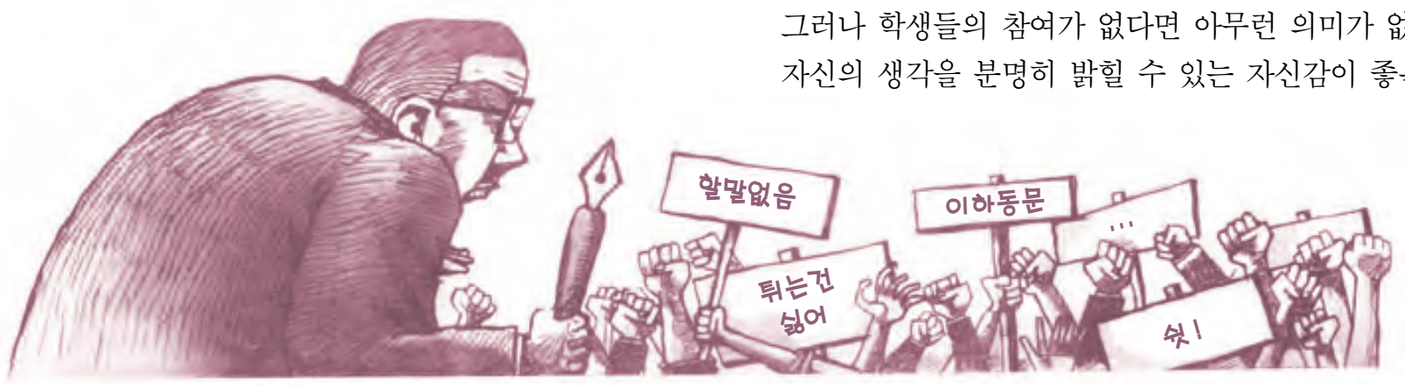
김 호 성
인도철학과 교수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혹시 당신도 침묵하는 다수입니까?

이상적인 진행방식으로 꼽히는 토론 수업.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이 좋은 수업을 만듭니다.



동대신문사

지 면 안 내

4면 본교 장애인들의 현실

이동권은 모든 장애인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이에 본교 지체장애인 학생과 학교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학내이동권 보호 현실을 살펴본다.

7면 정보트러스트 운동

사라진 고급정보 복원을 추진하는 시민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본다.

8면 디카사진 공모전

당선작, 심사평 소개와 함께 디카문화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미출마 단위 등록 연기

4개 학생회 후보자 출마 … 오는 5일로 등록 연장

2004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선거 등록결과 총 4개 학생회의 후보자가 출마함에 따라 등록률 저조로 등록기간이 연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욱 · 화공4, 이하 중선위)는 총여학생회 등 미등록 단위가 9개에 이르자 후보자 등록을 오는 5일로 연장하고 오늘(3일)부터 후보자추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임수욱 중선위원장은 "미등록 단과대가 전체 학생회의 50%이상 차지해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선거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장기간까지 미등록되는 단과대는 다음해 3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는 모두 단독후보로 출마했으며 각 단과대의 출마자와 구호, 공약은 다음과 같다.

문과대 △후보=최이평(사2) △구호=해맑게 웃는 그날까지 마음을 담아, 꿈을 담아, 열정을 담아, 희망을 담아
△공약=문과대 장학기금 조성, 명진관 공간문제 해결, 부업 · 직업정보 활성화, 과학생회 강연회 활성화

경영대 △후보=김정수(국제통상3)
△구호=우리 숲이 되어 지키자
△공약=학과제 전환, 동국관 공간문제 해결, 문화광장 만들기, 월별 예산 공개

사범대 △후보=이종관(역교3) · 김용환(국교3)
△구호=일천백 학림과 아름다운 동행
△공약=온 · 오프라인 학생회 제모습 찾기, 교육과정위원회 부활, 신자유주의 교육개방 반대, 금강산 모꼬지 실시 등

야간강좌 △후보=김윤권(정통3) · 채정석(세무회계3)
△구호=별빛지기와 함께한 야(夜)! 신(新)난다!
△공약=반미 · 반전 평화수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확대, 다양한 대학문화 형성, 야간강좌 정체성 확립

원총, 내일(4일)까지 등록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내일(4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지난 등록기간 동안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연장된 것이며, 후보자 추천은 오늘(3일)부터 가능하다. 입후보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원생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재학증명서와 추천인명부를 학술문화관 1층 대학원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한다.

내일까지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3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학부
dmz@dongguk.edu

미술학부 졸업전시회 오늘(3일)부터 갤러리 동국

예술대 미술학부 졸업작품전이 오늘부터 6일간 90주년 학술문화관 갤러리 동국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한국화 △서양화 △조소 △불교미술 분야로 총 53작품이 전시된다.

관람은 오늘 오후 4시 개전 이후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이와 관련해 미술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습한 과정을 점검하고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취업정보 한마당 오늘 6시까지 이화여대

노동부가 주최하는 '비전 2004 여성 취업정보 한마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린다.

취업정보관, 경쟁력소양관, 직업탐색관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취업정보관에서는 △전문강연 △모의면접 △이미지 메이킹, 경쟁력 소양관에서는 △이력서 작성 · 면접요령 △외국계 회사 취업가이드, 직업탐색관에서는 소규모 부스가 설치돼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각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남성들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등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주로 하는 기존의 채용박람회와는 차별화했다.

"토론 등 다양한 수업 원해요"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원하는가' 주제 토론회 열려

최근 교수강의법 개발이 교수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교육연구원(원장=박명희 · 가정교육)이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는 교육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를 주제로 수필을 공모한 결과 당선된 학생과 추천된 강의의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명강의' 추천 이유로 다양한 수업방식을 꼽았다. 이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적절한 시청각 자료와 외부 견학을 통한 현장수업 등이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혜영(철3)양은 "수업내용과 관련한 뮤지컬을 단체로 관람하고 공연의 기획, 제작과정을 직접 들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수업의 활성화도 수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토론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학습내용에 대해 피드백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수업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한 강좌당 학생수가 많아 토론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장하용(신문방송학) 교수는 "수강생이 100명이 넘어 토론수업이 힘들지만 교수의 노력여하에 따라 실행할 수도 있다"며 교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속적인 연구자세와 성실함이 학습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교수들은 강의시간을 정확히 지킬 뿐만 아니라 리포트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첨삭지도를 하고 매시간 쪽지시험과 함께 질문을 받아 다음시간에 답변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양창봉(생물2) 군은 "처음에는 부담이 됐지만 오히려 공부를 하도록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연구원은 이날 내용을 책자로 정리해 신규 교수 학습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명희 원장은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원하며 교수들이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o228@dongguk.edu

▶1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일부 공약을 불이행하는 현상은 매년 대다수 학생회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생회는 하반기 개강이나 학생대표자회의 시기에 맞춰 학생들에게 공약이행 여부를 알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보자들의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시작부터 후보자 공약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약은 학생들과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하나 성실히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부터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학생회선거 입후보자는 이행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인기만을 위해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능금제 내일부터 3일간

사과대학생회(회장=오원기 · 정외4)가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를 주제로 능금제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여성과 반전에 대해 다루는 이번 능금제는 △생리대 편지쓰기 △성패턴 알기 'Yes or No' △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여성문제 대한 극과 소모임 '열음'과 '다율'의 반전 · 통일에 관한 공연도 이어진다.

졸업앨범업체 부도 논란

졸준위, 인쇄업체 재계약 추진

특별감사 통해 투명성 보장해야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형 · 토목환경4, 이하 졸준위)와 졸업앨범계약을 체결한 LG기획스튜디오가 부도에 처해 타 인쇄업체와의 앨범재계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기획은 지난달 22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횡령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며 이에 졸준위는 업체대표를 민 · 형사상으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29일 이 사실을 단과대 졸준위장에게 알리고, 현재 인쇄 · 제본 등 앨범제작을 마무리하기 위해 4~5곳의 인쇄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형 졸준위 위원장은 "앨범의 질이 저하되거나 앨범제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앨범사업과정에서 졸준위가 앨범인쇄 전 중도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대학이 업체의 인쇄작업을 확인한 후 중도금을 지불하는 것과 달리 미리 지불함에 따라 사고위험과 피해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앨범계약 당시 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 학생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앨범미지급 등에 대해 성급히 우려하고, 재계약과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한 관계자는 "섣부른 추측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졸준위는 이번 사건으로 재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만큼 남은 과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선정과정과 계약서를 공개하고 이번 앨범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앨범사업은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업체선정과정, 계약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제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임수욱(화공4) 총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새터 등 규모가 큰 사업은 특별감사하고 있는 만큼 앨범사업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준위는 이번주 중으로 대자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알리고 앞으로 앨범제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독립생협 출범 논의 막바지

학교측과 논의 후 이달중 출범여부 확정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 · 생명자원산업유통학, 이하 생협) 독립법인 출범에 대한 생협과 학교측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생협 독립법인 논의는 지난 6월부터 학교 내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달 중으로 약정서 체결 등 독립법인 여부와 범위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생협은 현재 급여 · 회계규정을 통과시켜 독립법인 출범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한편, 생협은 이달 중으로 대의원총회를 열어 독립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 승인 △예산 심의 △임원 선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생협을 해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새 정관에 의한 생협이 출범할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불하고 자율가입방식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지도카드 전산화

지도교수와의 면담내용 등을 기록한 학업지도카드가 다음 학기부터 전산화된다.

이는 학업지도내용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회전무대

불균형 현상

○…중앙도서관 보관함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긋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기간제 보관함은 신청자가 초과한 반면 시간제 보관함은 하루 4분의 1 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 기간제 보관함 수를 늘려 사물함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시간제 보관함, 시간을 돌려 기간제 보관함으로 바꿔(?!)"

무소유

○…일부 경비실에 비치된 신문들은 가끔 엉뚱한 주인을 만난다는데.

이유인즉 교수들에게 배달돼야 할 신문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을 교수별로 분류하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언론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신문 주인찾기(?!)"

만능 매점

○…문화관 식당 그릴의 매점은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의 다양한 식성 때문에 분주하다는데.

알아보니, 식권 판매소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식권을 사려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매점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학내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아르바이트 학생모집으로 식권판매를 분리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매점과 식권 판매소의 결합, 유쾌하지 않은 동거"

이른 퇴장

○…백상예술체전 폐막식은 가수 러브홀릭의 콘서트장이 됐다는데.

이유인즉 러브홀릭의 공연이 끝나자 중강당에 있던 학생들 대부분이 나가 학생회 활동 영상물 상영 등 폐막식의 남은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자리가 텅텅 비었기 때문이라고.

이는 구성원간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행사 본래의 의미가 전도된 것이 아닐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인기가수만이 동국인을 단합시킬 수 있다(?!)"

200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공고

1. 개설대상 교과목
2003학년도 1학기 · 2학기 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 · 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2003. 12. 15(월) ~ 2004. 1. 12(월)
- 주 4일 수업 (월 · 화 · 목 · 금요일, 16일간 ~ 단, 12. 25(목)은 24(수)로, 1. 1(목)은 12. 31(수)로 조정)
- 단, 매주 토요일 · 일요일, 12월 25(목) 성탄절, 1. 1(목) ~ 2(금) 신정은 수업 없음.

나. 스키(2박 3일) - 12. 17(수) ~ 19(금)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0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됨.

6. 수강신청
가. 기간 :2003. 11. 4(화) ~ 11. 6(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서울캠퍼스
(가) 일시 : 11. 4(화) 오전 09:00 부터 11. 6(목) 24:00까지
(나) 장소 : 교내 자유 실습실
▶ 경주캠퍼스
(가) 일시 : 12. 3(수) ~ 5(금)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3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취소 및 정정기간 [2003. 11. 11(화) ~ 11. 12(수)] 외에 추가수강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신중히 수강신청.
(2) 사전에 2003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 참조와 더불어 수강신청 시 1학기 개설되었던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3)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4) 수강신청 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 바람.
마. 수강료 : (1)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0,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 2003. 11. 11(화) ~ 11. 12(수), 2일간
나. 유의사항
(1) 최초 수강신청(11. 4~6)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8. 수강신청 장소

건 물 명	실습실명	개방시간
명진관2층	A2	09: 00 - 22: 30
동국관M동 1층	Cyberland	09: 00 - 22: 30
	BSC7	09: 00 - 22: 30
동국관M동 5층	BSC10	09: 00 - 22: 30
정보문화관P동 5층	ESC4	09: 00 - 22: 30
정보문화관P동 2층	ESC5	09: 00 - 22: 30
학림관 3층	JE	09: 00 - 22: 30
중앙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	09: 00 - 17: 00
혜화관 2층	CAMPUS#	09: 00 - 22: 00

9.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3. 12. 3(수) 예정

10.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3. 11. 17(월) ~ 11. 20(목), 4일간.
나. 방법 : (1) 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수납은행 :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점 :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Tel. 02-2260-8990)
다. 유의사항 :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 (12월 3일 공고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 개설 예정 교과목

※ 수강신청 및 등록 결과로 강좌 개설 여부를 확정합니다. 단, 전공교과목은 학과의 요청에 의하여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직필 및 전공 교과목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인 경우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인 경우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 단기코스 강좌의 일정은 수강신청 정정 전 수업시간표 공고 시 확인 바람.

※ 아래의 교과목은 지난 계절학기에 개설되었던 과목이며, 아래의 교과목 외에 타 교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간	번호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 목	학점	시간	비 고
오전 9:30부터 12:20까지	1	교필	RGC003	불교와인간	2	2	10:30~12:20
	2	교필	RGC009	실용영어1	1	2	10:30~12:20
	3	교선	EGC152	좌선법의이해와연습	3	3	
	4	교선	EGC201	한국문학의이해	3	3	
	5	교선	EGC303	경제원론	3	3	
	6	교선	EGC305	회계원리	3	3	
	7	교선	EGC309	매스컴과사회	3	3	
	8	교선	EGC401	일반수학1	3	3	
	9	교선	EGC417	공학물리	3	3	
	10	교선	EGC457	과학기술사	3	3	
	11	교선	EGC459	지구환경과학	3	3	
	12	교선	EGC502	현대영어독해	3	3	
	13	교선	EGC506	기초일본어	3	3	
	14	교선	EGC605	영화의이해	3	3	
	15	교선	EGC675	인간행동의이해	3	3	
	16	교선	EGC681	숲과문화	3	3	
오후 13:00부터 16:50까지	1	교필	RGC001	자아와명상1	P/F	1	16:00~16:50
	2	교필	RGC004	국어작문의이론과실제	2	2	14:00~15:50
	3	교필	RGC006	컴퓨터활용과실습1	1	2	14:00~15:50
	4	교필	RGC007	영어회화1	1	2	14:00~15:50
	5	교선	EGC153	요가와자아탐구	3	3	
	6	교선	EGC207	한국사의이해	3	3	
	7	교선	EGC304	경영학원론	3	3	
	8	교선	EGC405	일반수학2	3	3	
	9	교선	EGC413	생물학개론	3	3	
	10	교선	EGC456	물리학개론	3	3	
	11	교선	EGC503	초급영어회화	3	3	
	12	교선	EGC514	초급한문	3	3	
	13	교선	EGC551	시사영어	3	3	
	14	교선	EGC602	소설의이해	3	3	
	15	교선	EGC620	한국사회의이해	3	3	
	16	교선	EGC670	현대사회와범죄	3	3	
야간 18:00부터 21:05까지	1	교필	RGC002	자아와명상2	P/F	1	18:45~19:30
	2	교필	RGC003	불교와인간	2	2	18:00~19:30
	3	교필	RGC007	영어회화1	1	2	18:00~19:30
	4	교필	RGC008	영어회화2	1	2	19:35~21:05
	5	교필	RGC009	실용영어1	1	2	18:00~19:30
	6	교필	RGC010	실용영어2	1	2	19:35~21:05
	7	교필	RGC006	컴퓨터활용과실습1	1	2	18:00~19:30
	8	교필	RGC011	컴퓨터활용과실습2	1	2	19:35~21:05
	9	교선	EGC304	경영학원론	3	3	18:45~21:05
	10	교선	EGC305	회계원리	3	3	18:45~21:05
	11	교선	EGC551	시사영어	3	3	18:45~21:05
단기강좌	1	교선	EGC686	스 키	1		2박 3일

교 무 처

특 강 공 고

김현석(한림법학원)선생의 헌법모의고사

1. 날짜 : 2003. 11. 10 ~ 11. 21 (월~금)
2. 장소 : 학림관 J201 강의실
3. 시간 : 18:00 ~ 22:00까지
4. 대상 : 전 동국인(계산학사 사시반과 법웅대는 필참 요망)
5. 신청방법 : 계산학사 2층 조교실에서 11월 10일 오후 5:00까지 신청
6. 수강료 : • 계산학사 입실자 1만원 • 본교 일반신청자는 2만원 • 타 대학교 학생은 3만원
※ 수강료는 강의교재가 따로 없는 관계로 주로 복사비와 특강 운영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수강취소는 11월 10일(월)까지 가능합니다.
7. 문의 : 계산고시학사 2260-8685

혼자 잘 살면 결혼해도 잘 산다

1. 날짜 : 11월 5일(수) 2시 ~ 4시
2. 장소 : 학림관 소강당
3. 시간 : 18:00 ~ 22:00까지
4. 강사 : 임계성
(83년 역사교육과 졸업, 솔로닷컴에서 강의, 작가)
5. 내용
- 인생의 마스터플랜 짜기
- 퍼포먼스 갭(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줄이기
- 성격과 습관이 팔자를 만든다
- 연애와 사랑은 기본적인 파트너쉽에서 시작한다
6. 문의 : 여학생실 2260-3056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부터

1. 물적 환경
2. 교육과정Ⅰ(교양)
3. 교육과정Ⅱ(전공)
4. **교수임용 및 처우Ⅰ**
5. 교수임용 및 처우Ⅱ
6. 간담회

이제 1천 여일 후면 건학 1백주년을 맞는다. 때문에 '동국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발전의 근본은 무엇보다 교육·연구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사는 총 6회에 걸쳐 본교의 교육·연구여건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교수채용, '시급한' 학과부터

교육부문 평가 강화·학생참여 보장 통해 심사공정성 기해야

교수의 능력은 그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교수 임용 정원을 늘리면서 우수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교 또한 오는 2006년 까지 300여명의 교수 임용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현 교수임용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본교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38.96명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 교원확보 인원인 교수 1인당 학생 수 △인문·사회계열=25명 △이·공계열=20명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적인 교수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원 임용 시 '특히' 필요한 학과가 우선적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 참조

▲**채용분야 선정**= 지난 3년 동안 교수모집분야를 살펴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인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가 각각 2명의 교수를 선발한 반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9.4명인 국제통상학과와 59.25명인 체육교육과는 아예 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이 필요한 학과가 우선적으로 교수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본교는 이사회가 정한 학과별 운영가능 최대 교수 수인 '학과별 교원운영 정원제도'도 모집학과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수가 231명인 신방과의 최대정원을 5명으로 정해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학과의 경우 최대정원 교수 인원이 교육부에서 정한 교수 1인당 학생 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과정**= 교수의 강의능력 등에 대한 평가보다 연구업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의 한 과정인 학과심사는 학과교수 전원이 평가하는 연구의 양적평가, 교수능력평가와 외부인사와 관련세부전공 교수가 평가하는 연구의 질적 평가로 나뉘어진다. 이 때 교수 개인의 강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개강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과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교수의 연구업적부분에 심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강의평가의 강화 등을 통해 교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업을 받게 될 학생도 공개강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생참여가 실시되고 있는 학과는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등 사범대와 법학과 등 일부 학과이며 이들의 평가내용은 심사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학과 교수들이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수교4) 전 학자투위원장은 "학생이 공개강의에 참여하고 평가한 내용이 교수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밑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의 경우 평가기준과 채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대학간의 교수임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교수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학내·외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심사부터 합격자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먼저 합격통보를 받은 타 학교로 교수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심사기간은 타 대학과 비슷하나 이사회 승인에 걸리는 시일이 10~20여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2학기에는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개강 후가 돼서야 신규교수 채용이 승인돼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본교는 지원자가 부족한 만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날짜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타대학 교수를 초빙하는 특별채용은 실력이 검증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최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경제학) 교수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채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친분 등을 통해 악용되지 않도록 연구업적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오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10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교원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교원임용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인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가 각각 2명의 교수를 선발한 반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9.4명인 국제통상학과와 59.25명인 체육교육과는 선발을 하지 않고 있어 모집분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개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강의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공개강의를 일부 학과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진행되더라도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잦아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력이 검증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채용도 눈여겨 볼 만하다.

〈표〉교수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20개학과

단위(명)

순위	학 과	교수1인당 학생수
1	경영학과	67.66
2	체육교육과	59.25
3	신문방송학과	57.75
4	법학과	52.50
5	회계학과	46.00
6	건축학과	43.28
7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41.00
8	국제통상학과	39.43
9	전자공학과	37.50
10	중어중문학과	37.25
11	식품공학과	35.60
12	경제학과	34.11
13	통계학과	33.40
14	영어영문학과	33.00
15	역사교육과	32.25
16	정보통신공학과	32.00
17	행정학과	31.83
18	미술학과	31.50
19	영화영상학과	30.25
20	수학교육과	29.40

※ 기준일 : 2003학년도 2학기 현재
※ 학생 수는 대학원생 수 제외

사설

학생회 선거 외면은 안된다

동악의 또다른 축제, 학생회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활기가 넘쳐야 할 축제 분위기가 영 시원찮을 듯 하다. 정작 축제를 이끌어 갈 주체인 선거 입후보자가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있는 단위는 총학생회와 문과대 경영대 사범대 야간강좌총학생회 등 4개 단과대가 전부다. 때문에 미등록된 단과대와 총여학생회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연장해야 했다. 그런데도 만일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던 지난해를 떠올려 보자. 안 그래도 어떻게 투표율을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올해의 상황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없어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답답하다. 학생회 사업과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니 말이다.

사실 선거 등록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학생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불신과 무관심, 참여 부족 등 학생회와 학생간의 단절, 그 악순환의 반복은 학생회를 '고립된 섬'이 되게 했다. 심지어는 이 '고립된 섬'에 누구도 쉽게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학생회의 변화 요구와 새로운 학생회에 대한 기대는 선거철 때마다 불거진다. 올해도 물론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회 사업과 활동이 있으려면, 학생회가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표자 선출과 학생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적극적인 후보 등록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진정 '축제다운' 축제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곧 학생회와 학생들이 신뢰를 주고받는 첫 과정이며 그렇게 될 때 올해의 선거 축제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홍기삼
편집인겸주간 이상영
부 주 간 구본철
편 집 국 장 류변성
편 집 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4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반전형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표기 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한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조경, 가정, ★간호, ★생명공학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가정, ★조경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학계	★한의, ★의	★한의, ★의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전자상거래(경제, 국제통상, 정보산업)	—

▣ 국가지원 대형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분 야	지원기관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선정(관련) 학 과	특 전
인문사회	교육인적자원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장·단기해외 연수 및 학과별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학술진흥재단	한국아나키즘 100년 연구팀	윤리문화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학술진흥재단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선학과	〃
	학술진흥재단	연행록 노정답사 연구팀	국문학과	〃
	학술진흥재단	연행록 해제팀	국문학과	〃
	학술진흥재단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연구팀	북한학과	〃
자연계열	과학기술부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타(SRC)	물리,반도체과학과	참여 대학원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공학계열	과학기술부	밀리미터파신기술 연구센타(ERC)	전자공학과	
	산업자원부	산업용 공정제어밸브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산업자원부	생체조직공학기술연구팀	화학공학과	〃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
의학계열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NRL)	한의학	〃

※ 기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모집 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4년 2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미술학과: 실기시험)
2. 박사과정 :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제 2외국어(박사과정: 불교·인도철학과에 한함)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11. 14(금)	▶ 교부 가.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guk.edu/gs) 나. 서울캠퍼스 : 학술관 3층 대학원 교학부 다. 경주캠퍼스 :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교학부 ▶ 원서접수 가. 인터넷접수: 2003. 11. 10(월) ~ 11. 13(목) 17:00시 까지 나. 방문접수: 2003. 11. 12(수) ~ 11. 14(금) 17:00시 까지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 10:00시 부터(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전일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03. 12. 5(금) 14:00 예정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등록기간	2003. 12. 15(월)~12. 19(금)	조흥, 제일,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 장학
1. 외국인 입학생 전원에 대해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
3.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 교수에게 매학기 교육조교를 배정
4. 화학공학과 입학생 전체에게 장학금 지급
5. 본교출신 석·박사 입학생 전체에게 장학금 지급(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대상)

▣ 기타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 내에 수료 가능함.
※ 석사과정 법, 경영, 화, 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 개설된 학과임.
※ 석, 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 (한의, 의, 간호학과는 동일 학과에 한하며,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호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가능).
※ 연극영화학과 영화학 전공은 이론임.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11월 3일(월) ~ 12월 5일(금)

가을 특강 (2차)

	영어회화 (초,중,고급)	TOEFL Writing Preparation Writing & Speaking	Presentation & Interview Skills	CBT TOEFL 독해집중반	TOEIC 700 TOEIC 800
강의시간	8:00~9:00 17:00~18:00	8:00~9:00 17:00~18:00	8:00~9:00 (월, 수, 목, 금)	9:00~10:30 (월, 수, 금)	18:00~19:00 19:10~20:10
	주 4일 50분 강의			주 4일 90분	주 4일 60분
정원	15명	15명	10명(3학년 이상)	40명	40명
교수	초빙교수 (Native Speakers)	Kerry/ Mary-Anne	Modesto Tumacder	강민건	송명현/김명렬 (교재저자, RC/LC전문강사)
수강료	8만원 (일반: 9만원)	9만원 (일반: 10만원)	9만원 (일반: 10만원)	11만원	12만원
강의기간	11월 3일(월) ~ 12월 5일(금) : 5주				
접수기간	10월 22일(수) ~ 11월 5일(수)				
문의 및 접수	▶ 위치 : 동국대학교 혜화관(G) 1층 ▶ 문의전화 : 2260-3590/3471 ▶ E-mail : today@dongguk.edu ▶ 근무시간 : 오전 9:00 ~ 오후 5:00 ▶ 계좌번호 : 조흥은행 371-04-548122 (예금주: 언어연구교육원, 봉일원)				

■ 수강생 특혜
1. 모의 토익 테스트 1회 무료 응시 혜택
2.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3. 100%출석자 다음차수 수강료 10% 할인
4. 무료 웹토익 수강 기회
5. 개근 수강생 보조가방 증정

※ 토익 700/800 수강생
1. 11월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패스제시험(모의 TOEIC) 무료 응시
2. 90% 이상 출석자에게 트루잉글리쉬의 온라인 모의 TOEIC 1회 무료 응시

■ 2학기 패스제도익 및 모의토익 시행 예정일 : 11월 15일(토) / 12월 20일(토)

◈ ETTN CNN 기초 청취
- 장 소 : G204 / 시간: 오후 6:30 - 8:00 / 기간 : 11월 3일(월) - 12월 4일(목)
- 수강료 : 65,000원(교재, TAPE 포함)

◈ Web TOEIC 안내
- 수강료: 15,000원

언어연구교육원

장애인 동행르포

장애인 이동권은 노동권, 교육권 등 다른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다.
이에 본교 15명의 지체장애인 중 한 명과 교정을 다니면서 이들의 권리보호현실을 살펴보고,
이동권 제약이 가장 많은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편집자

동국대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달 31일 오후 1시. 동국관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모처럼만의 따뜻한 날씨에 벤치에 앉아 여유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몇 명씩 무리 지어 강의실로 향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처럼 익숙한 풍경 속에 장애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떠올린 장면은 어떠한가. 그 속에 장애인의 자리는 있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속 시간을 조금 넘겨 나타난 김주현 군(법1). 그는 송글송글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웃어 보였다.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고 절뚝거리며 부자연스럽게 걷는 김 군은 고등학생 시절 뇌출혈로 오른쪽 신경이 마비됐고, 지금은 오른손과 오른발을 쓸 수 없는 2급 지체장애인이다.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편하지만 경사로가 없는 경우 핸드레일만 설치돼 있으면 이동은 가능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묻자 그는 "새로 생긴 중앙도서관을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중앙도서관, 상록원을 돌아보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그의 학교는 동국관 일대 뿐

동국관을 벗어나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은 다름 아닌 '과속방지턱'. 괜찮다면서도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어 나가는 김 군의 모습이 불안하다. "그래도 이 정도 높이는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높으면 조심스럽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과속방지턱이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무척 오랜만이네요. 동국관 이외에는 자주 다니지 않거든요. 새로 지어진 중앙 도서관 정말 좋네요."

팔정도를 지나 중앙도서관에 다다르자 그가 감탄사를 연발한다. 사실 그에게 학교는 '동국관 및 문화관 일대'나 마찬가지였다. 학생회관, 명진관, 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 절반 이상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에게 꼭 필요한 계단 핸드레일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건물 또한 절반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본교는 유난히 언덕과 계단이 많은데, 후문은 입구부터 계단으로만 다닐 수 있어 김 군은 학교에 입학한지 3년이 다 되도록 후문으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김지희 기자

지체장애인들에겐 작은 턱도 '큰 장애물'이다.

장애인 배려 '세심하게'

김 군과 중앙도서관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출입구가 문제였다. 출입구의 폭이 좁아서 지나가기가 불편한 것이다. 김 군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통과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다른 통로로 다녀야만 한다고 한다.

사실 중앙도서관은 새로 지어진 건물답게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해 배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럼에도 정작 '출입구' 부분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애초에 의도한 만큼 장애인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장애인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한해, 교직원과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로는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비장애인과 함께

"어, 어이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상록원으로 향하는 도중 김 군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한번 중심을 잃으면 다시 중심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기 십상이라고 한다.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른손이 마비돼, 식권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식판을 받는 것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김주현 군.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보니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었던 듯 싶다. 상록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친구들과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구김살이 없었다.

다시 동국관으로 돌아오는 길, 구중앙도서관 옆의 길을 가려다가 되돌아 와야 했다. 일반학생도 주의를 기울여 내려가야 하는 가파른 돌계단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멋모르고 이 길로 왔다가 무척 고생했던 적이 있었죠"

그는 힘없이 계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그의 뒷모습에 대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기자의 손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군과 같은 이들이 더 이상 동악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학교도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말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전용주차장 · 화장실 "급해요"

본교 지체장애인 중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휠체어 장애인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이동권 문제이지만, 그 외에 학교나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먼저 장애인용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본교 모든 주차공간에는 장애인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차를 할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 장애인 주차표지를 보고도 몰래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내를 오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김정훈(국어국문 석사과정) 군은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본교 건물에는 대부분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이 중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10군데 정도에 그치기 때문. 그밖에 건물 출입구 근처나,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크고 작은 '턱'을 제거하는 일도 '작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로 꼽힌다.

동악로

출구없는 감사

"감독님, 내일이 시합입니다. 빨리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려요. 지난 대회에서 부진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이든 지난 일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까지 지난 일의 평가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감사 또한 지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이자, 다음 예산집행의 바탕이 되지만 예산을 집행해야할 때까지 감사만 하고 있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본교에서 이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이하 SRC)와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이하 ERC)의 예산지급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SRC와 ERC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한편, 학교 측으로부터는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학교가 실시하는 연구기자재 구입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5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 문제다. 감사가 늦어져 연구기자재비 구입비 일부의 지급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자재가 필요한 연구가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감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SRC와 ERC는 한국과학재단에서 각각 매년 1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교수들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연구에 차질을 빚는다면 한국과학재단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이주의 시사키워드

부동산을 공공재로(?)

"노무현의 진정한 적은 '집값'이다"

지난 달 어느 언론사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의 말이다.

'서민 대통령'이 집값·땅값 안정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 서민은 집 장만하는 게 꿈이지만 일부 부자들은 땅, 빌딩을 샀다가 시세차익을 노려 되파는 '투기'로 재산을 쉽게 불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쓸만한 토지가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은 불로소득의 원천이라 할 만하다.

지난달 초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주택 공개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나 주택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급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개념을 '공공의 것으로 규정하고 빌려쓰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사유재산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재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한 논란 자체를 무색하게 해버렸다. '공개념'이 거의 도입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역점을 뒀다던 '보유세 300% 인상'은 알고 보니, 0.1%에서 0.3%로 올리는 것에 불과했다.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가구에 한해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정책도, 내후년 말에나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정책으로는 40%나 거품이 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종교사회복지

이혜숙 편저/ 신국판/ 431면/ 16,000원

본서의 제1부와 제3부에서는 종교사회복지의 보편적인 문제들과 전망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개별 교단들의 사회사업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말미에는 주요 교단들의 사회 복지시설 주소록을 첨부하였다.

법화·천태사상연구

이영자 저/ 신국판/ 469면/ 16,000원

이 책은 모두 세장으로 구성되어 천태사상의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천태사상의 전개까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숨어있는 황금의 꽃

고재석 저/ 신국판/ 356면/ 11,000원

이 책은 '한용운의 문학과 그 시대', '1910년대, 그 소외된 문학사와 작가', '현대문학사 그 어둠과 그 너머로' 총 3부를 통해 불교문학이 사실은 불교와 문학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성과 속이라는 이율배반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역설적인 문학이라며 침체된 불교문학에 작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상,하)

원효 지음/ 조용길·정통규 옮김/ 신국판
(상) 474면/ 17,000원/ (하) 573면/ 20,000원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나라 초기까지 중국불교에서 제기된 공(空)사상·반야(般若)사상·화엄(華嚴)·재가불교(在家佛敎) 등의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다.

불교가사연구

임기중 저/ 4×6배판/ 486면/ 19,000원

이 책은 저자가 앞서 출간한 『불교가사 원전연구』에 실린 불교가사 원전 10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목정배 저/ 신국판/ 487면/ 15,000원

한국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다방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순수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모으고, 제2편에서는 계율에 대하여 계율의 본래적인 의의를 논하고, 제3편에서는 한국불교의 신앙에 관하여 논하고 있으며, 제4편에서는 '한국의 불교운동사'를 통하여 근세의 불교상황을 자세하게 논하였다.

불교와 종교철학

김옹표 저/ 신국판/ 385면/ 15,000원

종교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종교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종교의 철학적 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하여 불교를 보편적 조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저/ 4×6배판/ 1,155면/ 60,000원

신라 원효대사의 작품에서부터 20세기 춘원 이광수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불교가사 원전 108편을 모두 모아서 한글원전을 주석하고, 그것을 다시 국한혼용문으로 표기하여 한글현대문으로 각각 대비하였다.

불교와 도가사상

김항배 저/ 신국판/ 388면/ 12,000원

이 책은 도가사상을 연구하면서 불교와 도가사상과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저자가 사유경향·인식 방법론·참자아 증득의 측면에서 이 두 사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

Book 카페

우리의 자생적 학문지형,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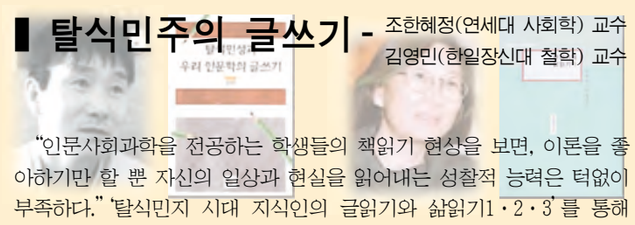
교수신문 역음
생각의 나무 출판

우리나라의 자생적 학문의 지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직 뚜렷한 굴곡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생성·변화·발전의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를 통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자생성과 구체성, 독창성과 현실성을 잣대로 도출한 20개의 '현대 한국의 우리 이론'을 담고 있다. 지식의 종속성과 허구성을 극복하려는 학계의 논의와 노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이론의 현재적 의미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를 통해 자생적 학문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곧 책 제목 그대로 오늘의 우리 이론, 그 활로를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책에서 살펴보고 있는 자생이론에는 △민중사건에 바탕한 민중신학 △김용옥의 동양학 △경제성장론의 입장에서 본 내재적 발전론 △강만길(상지대 총장·사학) 교수의 분단극복사학 △김지하의 생명사상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의 내재적-비판적 접근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한국민주주의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 중 특히 주목되고 있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와 분단체제론, 온생명 사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살펴본다.

탈식민주의 글쓰기 - 조한혜정(연세대 사회학) 교수 김영민(한일장신대 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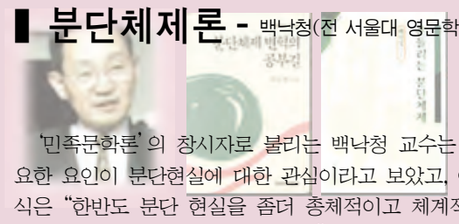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책읽기 현상을 보면, 이론을 좋아하기만 할 뿐 자신의 일상과 현실을 읽어내는 성찰적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2·3'를 통해 탈식민주의 논쟁을 촉발시킨 조한혜정 교수는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이를 테면 우리의 삶과는 괴리된, 이른바 '수입'된 학문의 문제점이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은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에서 중심적으로 이론화 한 김영민 교수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글쓰기는 개념 이전의 '실천' 그 자체다. 단순히 수입된 학문에 대한 설명과 의미 해석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오는 글쓰기로서의 인문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이론 중에서 '탈식민주의 글쓰기'가 가장 돋보이는 '우리' 이론으로 꼽히는 이유도 앞서 말한 것처럼 자생적 학문 모색이라는 점이 형식적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김정근(부산대 문헌정보학) 교수는 이러한 탈식민주의 글쓰기 논의에 대해 "시각적 종속성의 폐해와 비효율성에 대한 성찰, 학문 후속세대를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의 측면으로 볼 때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모색'의 권경우 편집장은 "현실적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삶의 글쓰기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분단체제론 - 백낙청(전 서울대 영문학) 교수



'민족문학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백낙청 교수는 민족문학운동의 중요한 요인이 분단현실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분단 현실을 좀더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보려는 이론적 모색"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의 산물이 바로 분단체제론이다. 한국사회의 모순을 '분단'으로 설정하고,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분단체제라는 매개항을 통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발현, 작동해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김윤철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은 이러한 분단체제론에 대해 "정파논리에 머물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공개된 장에서, 보다 확장된 주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한 사회의 현실 분석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에서 분단현실을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대안제시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단체제 극복 문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도 있다. 이수훈(경남대 사회학) 교수는 "분단체제론에서 분단극복의 무게중심은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개혁, 즉 기득권세력의 혁파와 그에 따른 사회개혁에 두고 있다"며 "개혁과 쇄신의 종착점이 통일이라고 보는 분단체제론은 통일론이라기보다는 개혁론에 가깝다"고 평했다.

한편, 본교 박순성(북한학) 교수는 "분단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초해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분석도구로 발전시키고, 핵심 명제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온생명 사상 - 장회익(녹색대학 총장·물리학) 교수

인간과 동식물 등의 개체생명들은 필수적으로 상호연관 돼 있으며, 개개 생명들은 '어떤 진정한 하나의 생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의 부분들일 뿐이다. 이는 장회익 교수가 말하는 온생명 사상의 핵심이며, '어떤 진정한 하나의 생명'이 바로 '온생명'이다.

"현대 과학이 생명에 대해 의미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 교수는 생명의 외연을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자족적인 단위로 보고 그 계에 있는 것을 온생명으로 바라본 것이다.

정정호(중앙대 영문학) 교수는 이 이론에 대해 한마디로 '종합과 혼융'이라고 특징짓는다. "인문학적 사유와 함께 생명론을 종합하고 서구의 과학사상과 동양사상을 혼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 그의 평. 하지만 "동양의 직관과 서양논리가 어떻게 결합할지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온생명 사상을 "창의적인 철학적·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이봉재(서울산업대 과학철학)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생명 개념이 지적 동조자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경험과의 연관이 모호해 생산성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문과대 강연회

탈근대 사상과 천인합일론 한 자리에 모인 학술현장

문과대가 학제간 연구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지난 30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강연회에는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와 유흔우(철학) 교수가 각각 '탈근대의 미래와 미래의 인간', '중국철학의 천인합일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탈근대의 미래와 미래의 인간=장 교수는 존 쿳지(J.M.Coetzee)의 소설 '추락(Disgrace)'을 통해 논의를 전개했다. 흑인차별법인 아파르트헤이트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탈근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배경인 '추락'은 대학교수인 주인공 루리가 근대적 지식인의 정착민적 삶을 벗어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추락(또는 탈영토화)한 근대적 지식인인 루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탄생된 미래의 인간, 즉 탈근대적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장시기 교수는 "탈영토화한 루리가 재영토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에는 계몽적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중심과 주변, 즉 다수와 소수라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구·백인·남성 중심주의에 의한 습관적 문화인 '아비투스'에 길들여진 지식인 계급인 루리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과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철학의 천인합일론=유 교수는 "중국철학은 본래 자연물이 아닌 인간을 중심자리에 놓고 연구대상으로 삼는 독특한 사유구도를 지녔다"며 "이를 살펴보기 가장 좋은 것이 천인합일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천인합일 사상은 △자연법칙과 인사규칙의 일치성 △자연사물의 속성과 인격 품덕의 연계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유 교수는 천인합일론의 배경이 되는 '천인관계론'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우주에서의 인간의 지위를 탐구한 천인관계론은 크게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자연주의 경향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보는 인문주의 경향 두 가지가 있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사상가 이야기

네오맑시스트이자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 · 1929 ~)

한편에서는 대선자금이, 또 한편에서는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가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음습한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돈을 건넨 구태의 주역은 "대한민국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한 기업이었다. 350여만 명 신용불량자의 상당수는 필시 "부자 되세요" 혹은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에 고무되어 신용카드를 맘껏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실재와 기호(혹은 상징)와의 아득한 거리, 그 끝의 간 데 없는 균열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난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할 때, 우리는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 1929 ~)를 만나게 된다.

장 보드리야르의 사상적 궤적은 대체로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물의 체계' '소비의 시대'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등을 저술했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1968년 5월의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네오-맑시스트로서 활동했던 시기였다. 스승인 앙리 르페브르의 세례를 받은 맑시즘에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기호학과 구조주의를 접목한 그의 화두는 '소비'였다. 그에게 있어 소비란 사회적 제도이자 강제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라고 단언하면서, 기호가 은폐하는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불안과 공허, 무기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의 두 번째 시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로서 명성을 확인시킨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의 자장 위에 놓여 있다. 시뮬라크르(simulacre)·시뮬라시옹(simulation)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 혹은 그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시뮬라시옹은 참과 거짓, 실제와 상상세계 사이의 차이를 위협한다고 한다. 나아가 "자본은 사실성의 기호들만을 증폭시키며 시뮬라시옹의 유희를 가속화할 따름이다"고 규정짓는다.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Hyper-reality(파생실재 혹은 과실재), 기호만 남아 실재를 대체하는 현상인 Implosion(함열 혹은 내파) 등의 용어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로서의 장 보드리야르를 알려주는 개념들이다.

때로는 극도의 냉소와 허무주의적 전망 때문에 '진부한 형이상학자'로 혹평 받기도 하는 장 보드리야르. 그는 여전히 소비, 기호, 상징, 광고, 미디어, 이미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는 문제를 던졌고, 해결은 이제 우리 몫이다.

엄 창 호
광고학과 강사

• 프랑스의 사상가
• '사물의 체계' '소비의 시대' 등 저술

교수동정

△이민웅(생물학)=제7차 한·중 균학공동심포지엄 참가위해 오늘(3일)부터 6일까지 중국 방문.

△김일중(국제통상학)=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ssian resources recyling에서 논문발표 위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만 방문.

△김방옥(연극학)=국제연극평론가협회 21차 세계 총회 참가 위해 지난 3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루마니아 방문.

소나기

때 이른 겨울, 나만의 겨울나기 대작전

△최최선책 =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반구로 여행을 간다.
최선책 = 따뜻한 사람을 만난다.
차선책 = 내복을 입어라.
△남자친구랑 꼭 껴안고 돌아다니기.
△소음인은 꼭 내복을, 태음인은 아무렇게나!
△빨간 내복 입기.
△난 이미 코트를 마련해뒀다.
△36.5℃의 생체난로를 옆구리에 달고 다니기.
△쭉쟁이 점퍼사주기.
△동국대 자취생들이여 야도에서 겨울을 보내자!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ROTC 동계입영훈련.
△눈감았다 떴다와 입벌려 닫아를 153번 동시에 행한다. 그럼 진짜 열난다.
△피하지방 1%늘리기.
△소개팅 1백번 달성.
△계절학기 들으면서 알바해서 한달간 여행가야지! 같이 가실 분!
△찜질방에서 살자.
△나홀로 집에!
△그 혹은 그녀와 같이 다닌다.
△싸고 따뜻한 옷을 마련해야 할 듯!
△엄마한테 김장 조금 일찍 담그자고 건의한다.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추운 날에 휴가 나오라고 협박한다!
△겨울 옷을 산다.
△추운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평상시 대로 다닌다.
△지하철 타고 서울 여행하기.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대한민국 지하철!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 다닌다.
△겨울이 빨리 왔다고 하는데 겨울방학 좀 앞당기면 안되나?
△남해안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방학을 보낸다.
△눈 빼고 다 가리고 돌아다닌다.
△스스로 '안춥다'고 최면을 건다.
△따끈한 대추차를 마신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2
FAX: 2279-1270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논단

유 지 나
영화영상학과 교수

스크린쿼터는 문화주권 '지킴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마디 "스크린쿼터 제도를 영화관계자와 재검토하라"로 다시 스크린쿼터 제도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논쟁은 이젠 식상할 정도로 해마다 두 세 번씩 되풀이된다. 이 논쟁을 부추기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자유치가 필요하고, 미국 달러가 투자되려면 스크린쿼터 제도 같은 보호장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50% 내외를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 이제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스크린쿼터 제도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좀 줄여도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다.

위 두 가지 맥락을 합쳐서 읽으면 한국영화는 다른 분야보다 잘 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이제 스크린쿼터를 좀 희생해서라도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한미투자협정'을 맺으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와 기대가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런 이야기는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작금의 상황에 설득력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런 항간의 논의, 보수적인 언론이 충돌하는 경제회생을 위한 스크린쿼터 희생론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외 문화·경제 정책을 보여준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식민화돼 친미를 넘어 숭미주의자에 가까운 경제정책 엘리트 집단의 편협한 문화산업관, 미국 우산 속에서 영원히 머무르려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영화보호장치로 보이지만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독점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박영화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여전히 극장에 걸리기 힘든 마이너리티 영화에 좀더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는 있다. 게다가 꾸준한 스크린쿼터 유지 운동으로 국제 사회의 문화다양성 운동 차원에서 상징적 존재로 인정받는 스크린쿼터 제도는 이제 강화된 국제 연대 속에서 제 3세계 영화, 여타 마이너리티 영화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보는, 관객의 다양한 영화 향유권을 위한 공적인 문화주권 제도로 강화, 재조정될 필요는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의 공적 집단에서 연구과제로 삼아 추진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쿼터 논쟁 때마다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는 스크린쿼터 제도가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나치게 자국 문화 보호적인 장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미국식 자본주의의 세계화이며, 개발국이나 제3세계는 소수의 거대한 미국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한 소비자로만 전락할 뿐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 개방과 시장접근 용이성이란 결국 소수 자본가의 그것일 뿐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미국 보수 정치의 실세인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수용하며 한국에 대대로 적용해온 숭미적인 경제학 흐름일 뿐이다.

이들의 논의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든다. 할리우드 영상물이 전세계 시장 70%대 이상을 독점해도 왜 그 문제점에 대해 시장의 수치, 자본독식의 수치, 부익부의 폐해에 대해 경제학자의 양심을 걸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일까. '그들의 경제학'은 소수 자본가의 더 많은 시장 확대를 위해 봉사하기만 하는 학문인 것일까. 그럴 때면 촘스키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의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 시민을 거대한 미국 수퍼마켓의 소비자로 전락시킬 뿐이다."

이 모든 논의 속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영화가 50%대를 넘어서는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다고 해서 포기할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를 세계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 마이너리티 영화의 생존권, 돈 없는 다수 약자인 관객의 영화문화 향유권, 할리우드의 전세계 표준화 문화 제국주의 신민화에 저항하는 공적인 제도로 유지하고 확충시켜야 한다.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 ② '문화정보경영개론' 홍윤기(철학) 교수

지난 9월 본교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좋은 강의' 원고 모집에 선정된 여섯 편의 글을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초청강연에서 실습견학까지 '알찬' 수업

편입을 해서 3학년이 돼서야 밟아봤던 동국대 캠퍼스에서 가슴벅찬 마음으로 처음 만났던 수업이 바로 '문화정보경영개론'이라는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스템과 학교규정들, 그리고 아직 미흡한 실습체계의 운영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훌륭한 호흡으로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늘 회의하는 형태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는 마음껏 불만도 토로할 수 있었다.

사실 몸이 불편하실텐데도 아무 내색 없이 당당하게 수업을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 제일 인상에 남는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은 문화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여 어떻게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기획서를 제작하는 것이 하나의 토픽이었다.

문화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연기획자 전성환 씨를 모셔놓고 강연도 들었다. 잊을 수 없는 강연이었다.

제일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은 문화정보경영개론이니만큼, 문화행사 기획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한 실습 견학 차 뮤지컬 '그리스!'를 보러 간 일이었다.

다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함께 뮤지컬도 반값에 보고, 무대 공연장 백스테이지도 함께 구경하고, 기획제작된 과정들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알차고 힘찬, 수업을 들었던 게 얼마만이었는지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다. 정말 기분 좋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

박혜영(문과대 철3)

도서관에선 전화 에티켓을

새로 개관한 도서관을 사용한지도 어느덧 2학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도서관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 사용문제이다. 책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아 진동소리가 옆의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는 일이 많다. 전화는 웬만하면 꺼놓는 것이 예의겠지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핸드폰을 켜놓아야 한다면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둬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화통화를 꼭 해야할 때는 전화를 조용히 받아서 휴게실로 가서 통화를 했으면 한다. 계단이나 책꽂이 사이에서 심지어는 열람실에 그대로 앉아서 전화를 받는데 작은 목소리로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 에티켓을 먼저 쌓도록 하자.

오경선(경영대 국제통상3)

불교의 평화관과 파병

나는 파병이 매우 안타깝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범망경'에는 "이익을 얻으려는 모진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명을 받들어 군대에 협조하거나 군대를 일으켜 서로 무량한 중생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물론 불가피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군대를 움직이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비폭력과 불살생을 강조하는 '불교의 평화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다 분명해진다.

불교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전쟁은 세계평화라는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기(緣起)'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쟁은 전쟁을 낳고, 그 폭력(전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역시 원칙적으로 파병을 반대하지만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한 적은 병력이, 짧은 기간 동안 주둔하기를 바란다.

정필수(불교대 불교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시선흐름 고려한 편집에 주의해야 '리포트베끼기' 경고한 기획광고 시의적절

지난호 동대신문은 백상예술체전, 동연제 등의 학내 행사와 이라크 파병 문제, 노 대통령 재신임 등 학외 사안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또한 농구부의 은메달 획득과 박영석 동문의 남극점 도전 기사도 관심을 끌었으며, 문화테마의 '북시티' 기사도 좋은 정보와 적절한 비판으로 잘 다뤄 진 것 같다.

하지만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편집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면의 톱기사는 백상예술체전 관련 기사지만 동연제의 사진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와 톱기사가 독자들의 시선을 먼저 끌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행사안내에 표를 이용했더라면 내용이 더 잘 전달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동연제 사진이 2004년 교과목 대폭 개편 기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게 신문 편집이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3면은 광고를 싣지 않고 통단으로 신문을 구성했지만, 사진이 많이 실리지 않고 글자들로만 구성돼 빽빽한 느낌을 줬다.

사회면과 학술면은 인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독자들의 관심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활자가 흐리게 인쇄돼 읽어 나가는 게 다소 힘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신문사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세세한 관심을 가진다면, 독자들이 더 깨끗한 신문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1면의 기획광고는 참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리포트 제출 시기와 기획광고가 게재 된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 시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혜진(사과대 신방3)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앤지야~ 11월 6일 100일 된 것 축하해.
△왕우 대학원 합격 축하해! -준만
△11월 3일 데이비드 베컴군 생일 축하한다.
△임지돌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탈노협'
△컴공02 이화수 100일 휴가나온 것 축하해.
△송기백기 형 29일 생일 축하해요. 문자 못 보내서 미안해!
△중간고사 끝났다는 사실. 정말 축하해야할 일이죠!
△세진아. 몽중인 짱 된 것 진짜 축하해.
△가리야 100일 휴가 나온 것 축하한다.

열심히 합시다

△장선, 태건, 민주, 정말 열심히 했다. 영웅을 향한 열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작업해서 12/25일 즐겁게 보냅시다.
△임용고사가 채 한달도 안 남았네 모두 파이팅! 특히 국교과 친구들 화이팅!
△우리 멍멍이, 힘들어도 학교 열심히 다녀요~
△이번 주 실용영어 시험, 모두 열심히!!
△우리 모두 수업 열심히 들어요!
△진, 뽈 발제 열심히 하자!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우리 동대인 파이팅!
△파병반대 투쟁 열심히 합시다!
△힘든 세상, 열심히 살아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탈 정기공연 모두 수고 많았어요. 특히 회장님, 연출님! -탈노협
△사과부 99학번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했어.
△선거운동원들 고생 많네요 힘내요!
△제22회 코끼리배 테니스 대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보라 알바열심히 해서 떼돈 벌어라
△1.1.1 테러, 잊지 못할 겁니다.
△D·N 모두 수고하십니다.
△탈, 정기공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빈이형 단식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K·J, K·J 수고했어
△자룡오빠! 파이팅입니다. -hj
△으악~ 새내기 생활의 끝이 보이는 이 현실.
△하루에 밥을 4끼씩 먹는 사람이 내가 되다니 끔찍해!
△뷰티풀, 카리스마 아직 11월이다!
△찐찐 난 늘 너의 너그러움에 감동하지.
△이화·동선 '초심' 잊지 않았겠지?
△쑥꽁아 랑포유 포에버~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3)	참치김치찌개 (13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닭꼬치구이 (1500)	부대찌개 (1500) 참치콘볶음밥 (1500) 불고기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소고기전골 (3200) 오징어불고기 (3200)
화 (11/4)	육개장 (1500) 닭조림 (1800) 순살돈가스 (1500)	양지탕 (1500) 해물덮밥 (1500) 백반 (1500)	된장찌개 (3000) 동태찌개 (3200) 제육볶음 (3200)
수 (11/5)	꼬치어묵우동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청포묵비빔밥 (1500)	닭개장 (1500) 돈갈비찜 (1800) 게맛살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삼계탕 (3800) 산채비빔밥 (3000)
목 (11/6)	소고기버섯찌개 (1500) 낙지제육볶음 (1800) 궁중떡볶이 (1500)	햄섞어찌개 (1500) 소고기해쉬라이스 (1500) 깐풍기 (1500)	된장찌개 (3000) 불낙전골 (3500) 고등어무조림 (3200)
금 (11/7)	소고기미역국백반 (1500) 미트볼카레덮밥 (1500) 폭찹 (1500)	소고기국밥 (1500) 오징어가스 (1500) 감자수제비 (1300)	된장찌개 (3000) 알탕 (3200) 삼겹살김치볶음 (3200)

금주의 추천메뉴

청포묵비빔밥 (동국관 수요일 석식)

녹두를 갈아만든 청포묵은 소화를 도와주며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시키고 식중독 예방효과도 있으며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재료이다. 청포묵과 아삭아삭한 야채, 여러 가지 나물, 거기에 고추장양념이 잘 어우러져 입맛을 한층 돋구어준다.

유진영(동국관 식당 영양사)

길 잃은 인터넷정보 복원 위한 첫걸음

사이버문화 관련 시민단체 '정보트러스트운동' 전개 … 저작권 문제 과제로 남아

오늘날의 인터넷상 정보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만들어진 소규모 사이트들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 때 정보들은 보존가치 여하에 상관없이 사이트 폐쇄나 서버처분과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영 당시 이슈를 생산하는 토론장으로 각광을 받던 문화웹진 '스폰지' '뉴스보이'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폐쇄돼 요즘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시대 문화의 산 증인이라 볼 수 있는 그들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 웹진의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임에 틀림없다.

사이버문화연구소,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6개 단체가 모여 시작한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시민운동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이 운동은 복원·보전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추진 단계로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발기인 모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주최로 '잃어버린 디지털 정보를 모읍시다'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희사이버대학 민경배(사이버NGO학) 교수는 "일부 소규모 사이트가 자금부족으로 폐쇄돼 가치 있는 정보가 일시적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독립단체로 출범해 본격적인 세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복원대상 정보를 심의해 자발적인 기부운동을 통한 공익화가 주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트러스트운동 추진위원회 조양호 실무위원장은 "운동의 자리매김을 통해 현재 일부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학술정보나 연구논문 등도 무료로 사회에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정보 공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저작권'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저작권 문제와 결부돼 사회내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추진단체는 저작권 관련 부서를 따로 설치해 대안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규약이 설정돼 있지 않은 실정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정보의 새로운 저작권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들은 정보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수기공모나 자료기부활동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의 가치정도에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보전 여하가 결정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렇기에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그 취지 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과제들을 고려해, 인터넷이 양질의 정보를 일반 사람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전자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정 보 트 러 스 트 운 동

문화단신

문화예술계 파병반대 움직임

'이라크 파병반대 문화예술단체모임'이 지난달 31일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 파병이 최종적으로 철회될 때까지 직접행동에 나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에게 이라크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것과 파병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여성문화예술기획,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20여개 문화예술 단체들로 구성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2003

시민정보미디어센터의 주관으로 '온라인커뮤니티비엔날레2003'이 다음달 1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문화의 창조자, 커뮤니티'를 주제로 열리는 최초의 커뮤니티 경연대회이다. 주요 행사로는 △온라인커뮤니티 프로그램 경연대회=베스트 커뮤니티, 도전 커뮤니티, 오픈 커뮤니티 △조사연구 프로젝트 △학술 심포지엄='온라인시민활동의 현황과 미래'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open4u.org)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 711-1460

다시 도래한 '야만시대' 씁쓸한 자화상

'탈' 28회 정기공연 열려 … 이라크파병 문제 마당극으로 풀어내

사진 〈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며 직장을 잃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장면.

문화수준이 낮고 약육강식의 본성만을 따르는 이들을 흔히 '야만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야만인들이 사는 시대는 그리 먼 시대만은 아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명분 없는 파병을 강요당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야만시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속극 연구회 '탈' 제28회 정기공연 '야만시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한 사회 세태를 한 가정의 가족사를 통해 그려냈다.

베트남 파병 후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앓는 가장, 파출부 일로 힘겹게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 불우한 집안환경으로 놀림을 받고 자란 남매. 이들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이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들은 군대에 갈 무렵이 되자 "이라크 파병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싶다"는 이유로 파병을 지원한다. 이는 대를 이어 비극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유미(행정2) 회장은 "웃고 우는 사이 도외시하던 사회문제를 생각해 보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본에서부터 연출까지 공연의 전 과정이 탈 구성원들에 의한 창작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극 중간에 관객을 끌어들이는 장치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하지만 첫날 공연이 백상예술체전 폐막식과 겹쳐 관객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과 이틀 내내 정보산업대의 축제 일정과 겹쳐 분위기가 다소 산만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번 공연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가 배우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능청스런 연기, 구성진 소리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감동과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를 열린 무대에서 펼치는 마당극의 형식을 통해 많은 관객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고민'을 담은 학내 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길 기대해 본다.

〈민〉
mh705@dongguk.edu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공연 - 라이브현장에서 만난 진솔한 스타의 모습

공 수 민
사과대1

선배언니와 함께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보기 위해 KBS 방송국으로 향했다.

입장이 시작되어 공개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좌석이 없어 계단에 앉거나 서서 볼 수밖에 없었다. 녹화를 시작하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김제동 씨가 나왔다. 약 10분 동안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너무 재미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윤도현 씨의 등장으로 녹화가 시작되었고 관객들은 환호를 했다. 첫 게스트는 '성시경'.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새 앨범을 내고도 드라마 촬영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며 노래가 정말 부르고 싶었단다. 아쉽게도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차마'를 불렀다.

두 번째 게스트는 신인 밴드 'zade'. 윤도현 씨가 가사를 써주고 zade는 윤도현씨 곡에 가사를 써줬다고 한다.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인지 분위기도 편했고 더 즐거운 공연이 된 것 같았다. 두곡을 부르고 무대를 내려가려는 zade에게 우리가 앵콜을 외치자 믿기지 않았는지 '정말이냐?'고 물어보며 우리의 앵콜 요청에 응해줬다.

세 번째 게스트는 's'. 자신들의 타이틀곡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토크는 윤도현 씨 없이 진행되었는데 s의 이야기 주제는 첫사랑. 커플들이 많이 있다며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나와 선배는 커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녹화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녹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개홀을 나서야만 했다. 아쉬웠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나를 '러브레터'로 다시 이끌어줄 것 같다.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공연과 친근감이 드는 스타의 모습은 오랜동안 내 기억의 한 켠에 남아있을 것이다.

매체비평

광고 편

OK 캐쉬백

"추리드라마 방식 신선
소비자와의 묘한 심리전"

새로운 경품광고 방식을 선보인 'OK 캐쉬백' 광고.

우리나라의 경품광고들은 이 땅의 소비자들을 바보로 여기는 모양이다. 바로 위에 뻔한 힌트를 주고 그 답을 적어 보내라는 맹맹하기 짝이 없는 광고들. 어디 경품광고 뿐이겠는가. 대부분의 광고들이 이처럼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두지 않는 자기완결형 광고에 머무르고 있다.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은 더 즐거운 광고. 광고에 대한 이런 원초적인 갈증에 화답하는 광고가 오랜만에 브라운관과 컴퓨터 화면을 찾아왔다.

10월 초부터 주로 인터넷과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OK 캐쉬백' 광고는 미스테리 형식을 차용한 광고영화(movecial)이다. 영화(movie)와 커머셜(commercial)의 결합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무버셜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실험적인 표현장르라 할 수 있다. 이 광고는 티저형식으로 프리런칭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추리극의 단계를 맞고 있다. 마치 탐정 홈즈와 괴도 루팡의 대결을 영화 '살인의 추억' 버전으로 패러디하면서 얼핏얼핏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다. 실종된 상속녀를 찾기 위해 고용된 탐정(유지태)에게 배달된 소포 속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경품퀴즈는 7주간 매주 1회씩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면서 '49일간의 추리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참여자들이 바로 사건의 열쇠를 찾는 탐정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다.

이 광고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교묘한 메커니즘은 바로 퀴즈쇼이다. 퀴즈쇼를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 가판대에는 '○○퍼즐' '○○퀴즈' 따위의 잡지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추가해도 좋을 또 하나의 마약이다. 퀴즈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자금이니 언론 길들이기니 재신임이니 하는 저급한 미스테리 분야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광고는 퀴즈에 광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추리극이라는 장르에 태워서 끝까지 긴장을 유지해 가며 소비를 충동하고 있다.

이렇듯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광고에는 얄팍한 상술이 어른거리기도 한다. 군데군데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라든지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퀴즈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 선착순 방식, 응모만 하면 푸짐한 경품이 쏟아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하는 카피 등은 다소 짜증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의 영특함은 매체의 특성에 대한 통찰에서 발견된다. 한번 클릭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하는 인터넷의 마력은 전통적인 TV광고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어 버린다. 매체의 진부함과 표현형식의 구태의연함을 한꺼번에 벗어나려는 노력을 이 광고를 연출한 신예감독(박명천)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화면과 화면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적 소통능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전파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파급효과를 계산에 넣은 광고방식이다. 광고효과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미디어 자체의 특성과 직결된다는 마셜 맥루언의 명제는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현 우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톡톡튀는 나만의 세상 디카로 찰칵!

디지털카메라(이하 디카)는 신세대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장점들로 인해 급속도로 보편화됐다. 때문에 사진촬영은 특별하거나 두려운 일이라는 기존의 인식도 점차 바뀌게 되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도 디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열린 '백상예술체전'을 맞아 총학생회(회장=유영빈 · 경영4)와 공동으로 '디카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동국사랑' '대학생활'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본교 학생자치 커뮤니티(www.dglove.net)를 통해 총 13작품이 출품됐다.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와 학생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편집자

요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흔히 약칭으로 디카라고 불린다.

디카라 하면 무척이나 생소한 기계라고 느끼는데, 디카는 이미 각 가정마다 보급되어 있는 카메라에 디지털 기능만을 추가한 것이다. 즉, 필름대신에 메모리칩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 도구이다.

편리함으로 승부

최근 디카 열풍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2~30대의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주를 이룬다.

종류로는 자동촬영 기능만 있는 보급형 기종에서부터 렌즈를 교환하는 고급사양까지 다양한 기종이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종은 주로 3~400만 화소의 보급형 기종이며, 사용은 주로 가벼운 스냅사진에서 출발한다.

디카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쉽게 PC로 전송할 수 있고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초기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촬영 시 메모리칩에 저장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이다.

요즘은 각 대학가나 공원에 가보면 디카를 들고 사진을 찍는 풍경을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생활 속의 일부로 이미 부지불식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카가 최근에 부각 되었다기보다는 이미 카메라의 촬영문화는 생활이 되었고, 단지 디카라는 새로운 기종이 기존 필름카메라와 교체되었다고 보면 된다.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순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카메라에서 디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다.

과도기적 문제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빠르게 디카가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인터넷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필름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스캔을 해서 웹 상에 업로드 하기보다는 편리하게 디카로 촬영하여 PC로 전송하여 웹에 업로드 하는 것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작업은 훨씬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적 시기인 탓에 무분별한 사진의 웹 난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카 열기에 버금가게끔 많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사용자는 구입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촬영한 사진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촬영매체에 관한 인격을 인지하여 촬영된 사진을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나아갈 길

초기의 모태인 "순간을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욕심"을 한번만 더 인지하고 이용하면서, 인터넷과 휴대폰 및 활용 가능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면 새로운 우리만의 디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 영 태
'디카유저' 대표

공모전당선작

1위 - 꽃비 내리던 날
정기훈(정보관리4)

△영화의 한 장면인 듯. 너무 예뻐요.
△이 사진 좀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정말 꽃비가 내린 것만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수동 모드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쁘다. 붉은 낙엽, 고동색 나무결 색.
△늘 앉아있던 그곳이 다르게 보이네요.
△며칠 전에 봤던 기타노 다케시의 '돌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사진입니다.

2위 - 상록원
김상진(이과대1)

△상록원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다니. 꼭 모더니즘 건물같아요.
△구도가 예술입니다.
△우리학교 식당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네요.
△흑백이라 느낌이 더 살아있는듯.
△그림자와의 조화가 돋보이네요.
△명암의 차이가 매력적입니다.

3위 - 가을속으로
임은아(일문3)

△내공이 상당하십니다. 난 언제쯤 이런 작품 하나 나오려나.
△주제와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의 옷은 여름인 점이 아쉽네요.
△물 위에 뜬 단풍잎이 인상적이네요.
△물에 비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쩌면 저렇게 물에 또렷이 비칠까요.
△거꾸로 보니까 비밀을 알겠네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순간포착한 장면인 줄 알았건만.

심사평

학생들의 풋풋함 돋보여
주제 · 구도 등 고려해 선정

사진이란 빛으로 그려내는 그림이다. 그리고 영상언어다. 사진 이미지로 표현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기성세대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풋풋함을 느꼈다.

열 세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 자신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와 소재의 내용, 그리고 화면의 구성력이 잘 맞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맞는 소재의 선택 · 구도 · 화면 · 구성력 그리고 빛의 느낌이 얼마만큼 잘 표현되었는지를 보았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쓸데없는 부분까지도 화면에 넣어 불필요하게 시선을 빼앗는 구도, 너무나 평이하여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사진, 세심함은 돋보이나 구도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작품들은 아쉽지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 공간에 대한 매력, 빛의 느낌, 남들과는 다른 대담한 구성력을 가진 학생에게 영광을.

꽃비 내리던 날

제목이 주는 느낌에서와 같이 단풍을 예쁘게 포장한 은유가 재미있다. 이 학생은 공간에 대한 여유를 아주 잘 살렸다.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미와 같이 공간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살린 사진이다. 비에 젖은 사물이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색 느낌, 그리고 전제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안정된 구도와 색감이 좋다.

상록원

모노톤으로 표현되어진 건물과 과감하게 화면을 구성한 부분이 잘 어울린다.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될 수 있을법한 건물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잘 표현했다. 대담하게 화면을 나누는 구성력이 돋보이는 사진이다.

가을 속으로

산뜻한 색감과 대비, 그리고 물빛에 비추어진 사물들의 반영. 남들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았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구도에서 조금의 욕심을 버렸더라면 하는 점이다.

주 정 선
사진작가 · 사진과영상 강사

메아리

위험한 정답

▲최근 유명 퀴즈 프로그램에 실제로 기출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 혹은 갑자기 말이 막힐 때 쓰는 감탄사 - 아, 왜 ( ) 있잖여! - 1번 거시기, 2번 아따, 3번 시방, 4번 어머.'

퀴즈의 답이란 원래 고도의 분석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 정답은 지금 방금 당신 머리를 스쳤던 그 것, '거시기'다.

▲최근 노동자들의 자살기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이용식 씨의 죽음까지 더해 모두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다.

왜 노동자들은 자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 임금 7만원 올려달라고 파업했다가, 자신을 '호의호식하면서 날뛰는' 귀족노조로 몰았던 몇몇 일간지들 때문이었을까. 파업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몇 억씩 빚을 져, 매달 십 여 만원으로 살아가야 했던 비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고용주들이 이같이 손배 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는 걸 알면서도 보호한 정부 때문일까. 어쨌든 이 문제를 한 가지 '정답'으로 정리하긴 힘들 듯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노동자 자살문제를, 정부는 마치 퀴즈풀 듯 큰 고민 없이 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마치 잇따른 자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신나'를 정답으로 꼽기라도 하듯 '집회 시 신나 소지 금지'와 같은 대책을 내놓았으니 말이다.

그나마 지난 29일 내놓은 손배 가압류 제도악용과 비정규직 차별을 억제하는 대책도, 알고 보니 이미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이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근본원인을 찾아야할 판에 '거시기, 그러니까…' 하며 머뭇대는 꼴이다.

▲퀴즈 프로그램에는 '찬스'도 있고, '패자부활전'도 있다. 그렇기에 '아니면 할 수 없고'식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에게 놓인 과제인 노동자들의 자살문제는 노동자 혹은 국민의 사활이 오가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퀴즈 맞추기를 한가로이 기다리기에 국민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하다.

송윤경 사회부장
itsU@dongguk.edu